

정부 '해체공사 감리비 기준' 정비 추진... "해체감리자 '광범위한 업무범위 및 과중한 책임' 고려돼야"

해체공사 안전사고 위험요소 상존해 부담 커
사고 날 경우 감리자만 무한 책임지는 구조
"합리적 대가기준 두고 충분한 교감 전제돼야" 목소리 높아
"신축공사 감리 비교해 해체감리 업무범위 과도하다" 의견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주한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등의 해체신고 간소화 △건축물 해체공사의 적정 감리비 적용 기준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기준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명확한 대가기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축사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체감리자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감리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건축물관리법령상 해체공사 감리대가는 공사비요율방식 혹은 실제 정액가산방식 중 선택해 적용도록 하고 있다. 공사비요율방식은 기존 비상주감리에 적용하던 요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주감리에 요율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실제 정액가산방식이 선호된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간 차이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형편이다.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비상주 해체공사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건축물 규모나 용도 등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대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해체공사 감리 업무범위가 신축공사 감리와 비교해 지나치게 넓다. 신축공사 감리의 경우 감리자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체공사 감리도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기본이 되어 하나 실상은 감리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용자제의 적합성 검토·확인·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업무까지 포괄한다.

▶ 3면 계속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에서, 해체공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공자에게 집행유예, 감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착공신고와 준공도 작성, 사용승인 신청은 '공사 시공자 업무'...설계자·감리자는 업무주체자 아닌 관계자일 뿐"

LH·민간에서 사용승인일을 잔금기준일로 정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건축사 설계비 잔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착공신고, 준공도 작성, 사용승인 신청' 떠안아
협회, 표준계약서 개정해 공정 계약 체결·분쟁 발생 방지

"준공서류 작성은 엄연히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LH 등은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 포함) 일을 잔금 기준으로 정해 건축사들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착공신고, 준공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업무를 떠안게 하고 있어요. 서둘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 A 건축사는 건축사들이 설계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착공신고와 준공도, 사용승인 신청을 무료로 떠안는 관행을 두고 "이런 무료 행위가 건축사사무소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며 "착공 및 사용승인 신청을 제도적으로 원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못하도록 하고, 별도 비용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제3자 건축사 및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리자가 할 경우 시공자나 발주자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5면 계속

▶ 최근 국토부가 발주한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주요 과업내용

- ▶ 해체신고 대상 중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제한
- ▶ 대수선 연계 해체 허가(신고) 간소화 및 감리 지정 한리화방안 마련
- ▶ 해체감리자 적정 자격기준 검토 및 감리비·해체계획서 작성비용 적정 기준 제시
- ▶ 해체 신고 및 대수선·해체 연계 행정 절차 간소화 법제화방안 제안



"국내 최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전문제조업체"

"컬러 BIPV" 건축물의 가치를 더하다

효율 + 품질 + 디자인을 모두 만족하는 BIPV

BIPV 맞춤형 설계 지원을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주)알파에너지웍스

문의 : 031-275-9575 / www.alphaenerworks.com

설계지원 접수 : 010-9484-8427 / hmlee@alphaenerworks.co.kr



대전 A 공장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신사동 멀버리힐스



강남뉴욕재과 재건축



여의도 사학연급회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BIPV)
KS 인증제품
PV0723010

KT송파타워

사 설

착공신고부터 우리의 일이 아니었다

설계업무를 시작하면 책임감이 생긴다. 창조적인 작업의 시작에 가지게 되는 일종의 애착과 같은 감정일 것이다. 이 책임감은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 사용자가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 때문인지 혹은 오랫동안 제도를 거스르는 현실이 만들어낸 것인지, 설계자가 사용승인 시까지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건축주가 많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할 때 설계용역비를 완납 받지 못하고, 수개월 혹은 수년 후 사용승인 시까지 잔금을 남겨두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많은 건축사들이 받지 못한 용역대가의 총액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미수금의 주원인일 수도 있다.

설계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며 설계용역 비용을 완납 받고, 착공신고는 건축주 혹은 시공자가 진행해야 한다. 시공과정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용을 받고 업무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도서작성과 행정업무 역시 건축주 혹은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여야 한다. 가끔 건축주 혹은 시공자가 세움터(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설계자 혹은 감리자에게 해당 업무가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합당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업무가 추가된 만큼의 용역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건축설계와 시공과정에 다양한 절차와 규제가 생겨난다. 예

를 들어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결국 건축사가 추가적인 대가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때마다 해당 용역대가가 늘어나는 것이 맞을 것인데 민간건축물의 경우 늘어나는 커녕 수십 년째 제자리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업무는 늘어나고 대가는 그대로인데 알고 보니 그 업무가 우리가 해야 하는 업무도 아니었다니, 물건 한 개를 적은 이윤을 남기고 팔았는데 서비스로 두세 개 더 집어가 버리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주에게는 건축사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다양한 업무를 부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가 없이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기 어렵다.

잘못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통념을 거슬러 '다른 사무소에서는 다 해주던데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한다. 먼저 우리 건축사들이 각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뚜렷이 알고,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근거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하여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록 자료가 만들어지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각 업무에 대한 합당한 용역대가를 산출하고 업무 진행 각 시점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마다 설계과정에 필요한 일은 늘어나는데, 업무대가는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고, 알고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을 하고 있었다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함께, 그리고 빠르게 바꿔보자.

시 론

건축사사무소, 나 홀로 일하기



조성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웨이즈

대한민국에 1인 건축사사무소는 '23년 2월 기준 9,366개소(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통계현황 참조)라고 한다. 나도 그중에 하나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1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대학 졸업 후 7~8년의 실무를 경험한 후 이전이라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와서 사무소를 개업한 후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 주택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 다양한 건축주들과 협력업체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거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1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다. 어느 순간 업무에 시달려 기존에 했던 디자인을 답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땐 두렵기까지 하다. 건축은 협업을 할 때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모여 더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관협, 감리, 업무대행, 계획, 중간, 실시설계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나 홀로 하게 되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진다. 크로스체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사다.

고단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항상 대학과 실무에서 배웠던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건축사사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1인 사무소를 고집하고 싶다. 1인 사무소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의 절감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입의 불규칙함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무소의 대표로서 무게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동안 사무소를 운영해 보니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돈'이란 그 중압감의 무서움을 알았다. 가장 좋은 것은 이로부터의 해방이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의 협업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다른 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업체 등과 나의 결정에 의해 손쉽게 같이 일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느낄 때가 왕왕 있다. 건축 업무에만 시달리다 보면 이런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면 기분이 좋다.

이제 마흔 살에 접어든 아직은 젊은 건축사이다. 앞으로도 30년 이상 더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걱정에 나 홀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60, 70대의 나도 이와 같은 모습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젊기에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미래에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무실 운영이 보다 수월해지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인 사무소이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점 있는 것도 사실

그럼에도 비용 절감,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협업 면에서 장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바탕으로

사무소 운영 보다 수월,

발전할 수 있기를

사무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더 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의 나는 항상 시간에 쫓겨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나는 불확실성에 맞서 사무소를 더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Archicad BIM 하나로 프로그램 다이어트하세요.

업무 시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신 BIM 하나로 끝!



26

▶1면에서 계속

▶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가 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2천만 원 벌금형(한산 관계자 유죄는 인정되나 모두 집행유예 선고)”

“재하청업체 백술건설 대표이자 골짜기 기사 조모 씨 3년 6개월, 한술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2년 6개월”

“감리자 징역 1년 6개월”

업무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한 까닭에 감리자의 경우 사고라도 날까 살얼음을 밟듯 전전긍긍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실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기준으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사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가 쫓겨야 할 책임도 과중하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가 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에서는, 해체공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공자가 집행유예인 반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라 할 수 있는 감리

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건축사·관계

작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서
해체공사 주체인 시공사 ‘집행유예’
보조자라 할 수 있는 감리자 ‘징역형’

해체감리자 업무범위 너무 포괄적
‘사고 날까 전전긍긍 살얼음판’

자들 사이에선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사들은 해체공사의 특성,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책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NEWS1’이 보도한 <건설업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횡보”> 기사는 해체공사 감리현장 현실을 고려,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기사에서는 ①건축사보가 감리해도 되는 현장을 건축사가 부풀리고 있다는 의도로 작성되고, ②건축사보를 ‘중급기술사’로 지칭하는 등,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건축사 및 관계자들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다.

협회 관계자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대가기준 관련해 정부에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 중에 있다”며 “대가기준 마련 시 해체감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포괄적인 업무범위와 과중한 책임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고, 감리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현실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방송 중 건축물 설계자 표시 필요해”... 건축사협회, 설계자 저작권 보호 위한 표시 방식 EBS에 요청

건축문화 진흥 이끄는 EBS ‘건축탐구 집’

공중 송신 시점에 건축물 설계자 표시로 저작물 보호 요청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프로그램인 ‘건축탐구 집’에 소개되는 건축물 설계자 표시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건축물 설계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함이다.

‘건축탐구 집’은 EBS가 2020년부터 제작 방영 중인 일반 시청자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건축을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진흥부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건축문화 진흥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설계자가 건축물

을 소개하는 공중 송신 시점이 아닌 프로그램 말미에 엔딩 크레딧으로 ‘출처’ 또는 ‘자료 제공’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이 건축물의 설계자를 인식하기 어렵고, 영상에 포함된 타 저작물의 출처 표시로 오인·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건축물
설계자 표시야말로
저작권 권리 보호의
첫 걸음

협회는 건축물 설계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공중 송신 즉, 소개 시점에 건축물 설계자인 건축사를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건축물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봤다.

조아라 기자

VIEW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감리원 이중배치’ 엄격히 제한, 대한건축사협회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축사보 현황 전산 관리 및 이중배치 여부 교차검증 역할

감리자 세움터 통해 건축사보 이중배치 여부 확인 후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배치현황 제출 시 공사감리자와 건축사보가 함께 서명날인

공사감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서 등 제출서류 보강 •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보 이중배치 여부 확인 후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 배치현황 제출 시 공사감리자와 건축사보가 함께 서명날인
허가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리일지와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건축사보 배치 확인사항 신설 •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로 통보
대한건축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전산 관리 • 건축법 ‘건축사보’, 주택법 ‘감리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중배치 여부 교차 검증 • 교차검증 후 이중배치 확인 시 관계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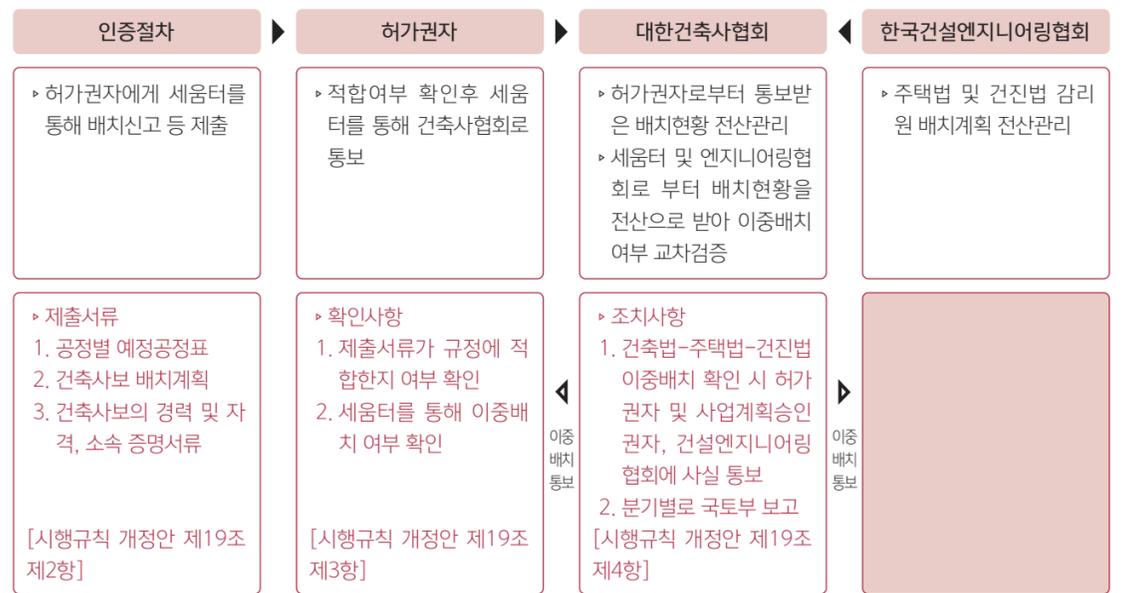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9조 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
	안 제19조의2 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가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건축법 시행령	안 제19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10항~제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 -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안 별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

앞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이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공사감리자(건축사)는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건축사보 배치현황

을 제출하고, 건축사보는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정별 예정공정표 및 건축사보 배치계획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에도 소규모 동물병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처리절차>



- ▶ 허가권자에게 세움터를 통해 배치신고 등 제출
- ▶ 적합여부 확인 후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협회로 통보
- ▶ 제출서류
 1. 공정별 예정공정표
 2. 건축사보 배치계획
 3.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 증명서류
- ▶ 확인사항
 1. 제출서류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세움터를 통해 이중배치 여부 확인
- ▶ 제출기간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된다. 이는 건축사보 1명이 다수의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등은 상주감리 대상이다. 이때 감리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도목·전기·기계분야는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야별 건축사보 각 1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때 건축사보는 다른 건설공사의 상주감리원 중복배치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산 관리하고, 건축사보·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중배치 여부를 교차검증해 이중배치 확인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앞으로는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장영호 기자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축문화 강국 위해 건축·도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전수식이 4월 14일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건축문화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건축·도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월 14일 제7기 국가건축

정책위원회(국건위)에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신임 권영걸 위원장을 비롯한 국건위 민간위원 17명의 위촉을 축하하고, 국가건축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7기 국건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위원회의 건축 정책 의제(어젠다)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기에, 국가의 건축정책은 우리 문화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표출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건축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 스마트 도시 수출 모델 개발·기후 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도시 정책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어 원 장관은 “우리 국민의 역성을 표현하고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상징공간 조성’에 국건위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잘 이끌어 국가적 건축정책 어젠다를 개발해 주길 바라며, 국건위가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건축정책 자문위원회로, 11개 부처의 장관과 건축·도시·디자인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박관희 기자

알아봅시다

국내 건축설계 성과 및 수준에 견줘 대한민국 건축사들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이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해외 건축 디자인 어워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작품과 국내 건축사들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본지에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디자인 어워드를 정리했다.

■ 해외 건축 & 디자인 어워드 9

ARCASIA Awards

웹 주소 : www.arcasia.org/awards/arcasia-awards-for-architecture.html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축상으로, 아카시아 회원국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어워드는 주거용 (RESIDENTIAL PROJECTS), 공공 편의시설 (PUBLIC AMENITY BUILDINGS), 산업용 (INDUSTRIAL BUILDINGS), 보존 프로젝트 (CONSERVATION PROJECTS), 통합 개발 (INTEGRATED DEVELOPMENT), 특별상 등 7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매년 상반기 누리집을 통해 관련 공지 및 접수를 시행하며, 일정은 주최국 별로 상이하다. 2023년 어워드 관련 공지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 (4월 초 기준)

Design Vanguard Award

웹 주소 : www.architecturalrecord.com

미국 건축 잡지 <Architec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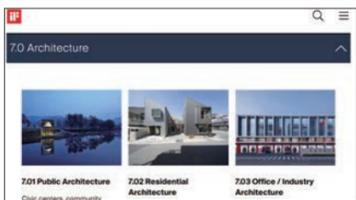


Record)에서 주관하는 건축상으로 매년 전 세계의 신진 건축사를 소개한다. 연령 제한은 없으나 경력 10년 이하 경력의 건축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매년 2월 경 작품을 접수받아 선정한다.

2023년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심사 위원단에 의해 선정된 올해의 작품은 2023년 6월호 <Architectural Record> 잡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IF DESIGN AWARD

웹 주소 : ifdesign.com



독일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로, 매년 시상이 이뤄진다. 건축 등 총 7가지 부문(제품·패키지·커뮤니케이션·인테리어·서비스디자인·건축·UX·UI)으로 구성되며, 2024년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 신설 예정이다. 건축 부문 출품작은 등록일 기준 2년 미만 또는 수상연도에 준공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건축, 주거, 오피스, 매장, 도시·조경, 다목적 건축물 등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뉜다. 접수는 매년 초순경 마감되며, 다른 어워드 참가 또는 수상작 출품, 복수 출품도 가능하다. 2023년 수상작은 이미 발표되어 5월 15일 베를린에서 시상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Red Dot Design Award

해외 건축&디자인 어워드

웹 주소 : www.red-dot.org



독일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로, 총 3개 부문(Product Design, Design Concept, Brands & Communication Design)으로 구성된다.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 51개 카테고리 중 ▲인테리어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Interior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어반디자인(도시디자인, Urban Design)이 포함돼 있다. 부문별 작품 마감일이 상이하며, 2023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 작품 제출은 1월 27일 마감됐다.

WAN Awards

웹 주소 : www.wanawards.com



영국 World Architecture News에서 매년 주최하는 건축상. 여가, 주거, 도시 경관, 공공, 도시경관, 상업 등이 포함된 섹터와 다양한 분야의 미래 프로젝트, 전문 분야, 재료, 심사위원상 등 다양한 분야를 모집하고 있다. 2022 어워드 수상작은 2022년 11월 발표됐으며, 2023년 어워드 관련 공지는 게재되지 않은 상태다. 누리집에서 WAN Awards 2023 관련 정보 메일 수신을 신청(survey.alchemer.com/s3/6971659/WAN-Awards-2023-Register-Your-Interest) 할 수 있다.

AR House awards

웹 주소 : arhouse.architectural-review.com/house2023/en/page/home



미국 The architectural review에서 주관하는 주택 관련 건축상이다. 규모 관계 없이 최근 5년 내(2018년 1월 이후) 준공작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형 하우스 블록-Large housing blocks-은 해당 없음).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 출품작 제출 마감일은 2023년 8월 25일(얼리버드 마감 6월 23일)까지다. 최종심에 오른 6개 프로젝트는 <The Architectural Review> 2023년 12월/2024년 1월호에 소개된다.

ICONIC AWARDS

웹 주소 : en.innovative-architecture.de



독일디자인협회(German Design Council)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어워드로, 올해의 건축사, 올해의 클라이언트(건축주), 올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문에 시상이 이뤄진다. 매년 5월 경 접수를 마감하며, ‘International ICONIC AWARDS 2023: Innovative Architecture’ 등록 마감일은 오는 5월 5일까지다. 현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10월 4일 뮌헨에서 시상식 개최

예정이다.

German Design Award

웹 주소 : www.german-design-award.com



독일디자인협회에서 추천받은 작품을 후보로 올려 경쟁하는 디자인어워드로, 매년 5월 경 접수한다. 2023년 어워드 작품의 수상자는 2022년 12월 발표되어 올해 2월 시상식과 전시가 개최됐다. 후보자는 액세스 데이터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받고, 누리집을 통해 지명된 프로젝트의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A'design award & Competition

웹 주소 : competition.adesignaward.com



이탈리아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어워드로 건축, 빌딩과 구조 디자인(Architecture, Building and Structure Design Award)을 비롯한 인테리어, 가구, 패키징, 조명, 의류, 가전, 컴퓨터 그래픽 등 모든 부문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2-2023 수상자는 4월 15일 발표되며 발표일은 매년 동일하다. 관련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육혜민 기자

이중희 편집위원 감사

▶1면에서 계속

▶ 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업무 내용)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및 관계자

구분	단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공사 시공자
1	건축설계		●		
2	건축허가 신청	●	●		
3	착공신고	●	○	○	●
4	공사(시공)				●
	상세시공도 작성				●
	준공도 작성				●
5	공사감리			●	
6	사용승인 신청	●	○	○	●

* 업무주체자 : ●, 관계자 : ○ 자료=건축연구원(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 가이드)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모든 신청서(신고 서류)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주는 건축행위의 주체가 되며,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와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준공 시 설계비 잔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식은 준공 때 설계비 잔금 지급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지불시기·금액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에서 ▲계약 시 3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건축허가서 교부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20%로 건축설계비를 지급토록 했다.

협회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계약 체결자 명칭 △업무범위 △자료제공 및 성실의무 △재료의 선정 및 검사 △분쟁조정 등을 보완 검토 논의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표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확산·정착을 위한 건축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구축·운영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1억 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 예정

대한건축사협회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

지진 발생 직후인 3월부터 시작된 모금에는 전 회원을 비롯한 본협회,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서울신용협동조합이 마음을 보탤 예정이다. 협회는 대한적십자사에 총 성금 1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은 지난 2월 6일 규모 7.8 이상의 2차례 강진 이후 6천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재해로, 4월 6일 기준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만399명, 부상자는 10만7,204명이며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7,259명, 부상자는 1만2,000명으로 확인됐다.

조아라 기자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녹색건축인증 제도 개요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미국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싱가포르 GREEN MARK
- 인증대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함.
- 평가분야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스퀘어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앞으로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유 또는 관리 건축물도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현행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감 소유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녹색건축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작년 말 기준 총 2만920건의 녹색건축인증이 이뤄졌다. 장영호 기자

주택 결로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결로 성능까지 향상하는 계기되길"

대한건축사협회·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2014년 결로 방지 설계기준 제정·시행... 종합토론으로 개선 방안 모색



주택 결로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11일 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선 및 적용 확대 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결로는 거주자의 건강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꾸준히 결로 방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결로는 하자 분쟁을 야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인 만큼 주택 결로 성능을 향상시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건축사들도 노력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돼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결로 성능까지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희 이사장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결로 방지에 대한 현안을 깊이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개최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나민희 주택공급기획팀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재욱 회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종합 토론에 앞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성우 이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결로 예방을 위해 2014년 5월부터 결로 방지 설계 기준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된 이후의 사례와 향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 '주거 환경 향상과 거주자의 건강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한 주택 결로 성능 활성화 방안'을 놓고 건축사, 시공사, 정부 부처 등 각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박세희 건축사는 "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로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에도 결로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를 대표해 LH 토지구획연구원 김길태 센터장, DL 이앤씨(대림산업) 황우진 차장은 "결로는 준공 후 하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도 "정부에서도 결로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4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본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로 평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5월 중으로 결로 방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로 방지 설계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예시집' 발간...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어려움, '완벽 해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체계획서 예시집이 발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3일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시집은 지난해 8월 모든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와 관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시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작성빈도가 높은 주택·상가·공장 등 7가지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법을 사례를 곁들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시집은 우선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 됐으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에 파일로 게시됐다.

박관희 기자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 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으며, 보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작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며,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을 지원해 왔다.

박관희 기자

건축 질의회신 Talk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시 등록전환 신청 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23.3.20

질의 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신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2020년 6월 9일 대통령령 제30775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대상으로 삼던 것을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같은 조에 따른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 그 개정 취지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함.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즉,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특정 행위 등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임.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3.4.6

질의 요지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을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창고시설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횡단보도 주변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관련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17.8.10

질의 요지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려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5호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관하여는 동 제5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 바,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는 설치할 수 있을 것임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 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츠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02)3416-6962~6 news@kira.or.kr

공공건축 탄생 보여주는 '프로젝트 서울' 전시회, 6월 4일까지 서울시건축전시관에서 열려

'프로젝트 서울, 서울형 공공건축의 탄생' 주제로...화~일요일 무료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준공된 공공건축물, '서울공예박물관' 사진=서울특별시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온 '공공건축'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6월 4일까

지 서울시건축전시관 비움홀과 갤러리3에서 '프로젝트 서울, 서울형 공공건축의 탄생'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격경쟁'에서 '디자인 경쟁'으로 '대면 심사'에서 '디지털 심사'로 변화해 온 서울형 설계공모 플랫폼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공공건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는 ▲프로젝트 서울에 대한 소개 ▲2016~2019년 설계공모로 당선된

준공된 작품 소개 ▲2020~2022년 디지털 심사로 진행된 설계공모 과정 및 당선작 소개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일요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프로젝트 서울(PROJECT SEOUL)-서울을 설계하자'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누적방문자 수가 약 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주요한 건축설계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관희 기자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개최

'올가니즘, 유기체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준공부문과 계획부문 접수

건축의 구조를 이루는 유일한 유기체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에서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한국목조건축협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운영위원회는 최근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올가니즘, 유기체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계획 부문 1차 작품계획안 공모가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고, 2차 패널 모형은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포트폴리오 접수를 받는

데, 일정은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다.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 1명, 서울특별시시장상 최우수상 1명, 산림청장상 최우수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등 우수상 3명, 특별상 등이 수상된다.

공모전 참가에 대한 질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운영위원회(02-518-0610)로 문의하면 된다.

FIRE RESISTANT
KOLAS (KS F 2845) **방화 인증**

방화 열관류율 0.824 W/m²K

- ✓ 미국 헨츠맨사의 RIMLINE® 기술로 개발된 "PU WINDOW"
- ✓ 플라스틱 창호 보다 뛰어난 단열 성능
- ✓ 알루미늄 보다 6배 강한 강도
- ✓ 커튼월, 패러렐 창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PHI 최고등급 독일 패시브협회 PH A 등급 (cold & cool zone 기준)

열관류율 0.654 W/m²K **Top-Notch**

상담 문의

010-3835-8812

010-3640-8812

(주) 승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3길 100-45

T 031-631-8812 F 031-631-88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뚜막로 1506호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비용은 줄이되 건축의 질은 향상시키는 AIA 설계 프레임워크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다섯 번째로 '경제성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공간을 물이나 에너지처럼 보존해야 할 자원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효율적인 공간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사진=Tim Griffith

초기 건축 비용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물의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건축사라면 한 번쯤 건축물의 경제성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은 초기 건축 비용과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가지게 될 가치까지 모두 고려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비용은 줄이되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다. 하나의 건축물은 규모와 예산에 상관없이 사용자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축 프로젝트에서 비용 즉, 예산은 부지 선택, 건물 프로그래밍, 공간 계획, 건물 시스템 평가, 재료 선택 등과 얽힌다. 그리고 각각의 선택은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거주자, 커뮤니티, 나아가 사회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경제성을 위한 디자인은 '합의'가 중요

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비용을 절감하되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건축물을 완성할 것인지를 말한다.

건축사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적정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건물 면적을 줄여 에너지, 재료, 자원 등을 절약해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혹은 초기 비용을 들여 건물 내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인 설계 디자인은 건물 사용 수명을 늘리고 유지 보수비용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설계가 커뮤니티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IA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안은 공간을 물이나 에너지처럼 보존해야 하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즉 전체 면적을 줄여 중복 설계 요소를 제거해 건물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건축물의 질을 높이는 설계 디자인이란 결국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간 효율성은 합리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건물 내 공동 사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다세대 건물 내 공동 물품 창고를 만들거나 건물 관리 서비스로 청소 및 유지관리를 맡는다면 거주민 전원이 드릴, 진공청소기, 사다리와 같은 장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장비를 보관해야 할 개별 공간이 불필요해진다. 이렇게 줄인 공간을 자전거보관대나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만약 커뮤니티 내 공공건축물이라면, 시간대별로 장소를 다채롭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강당이 빈 저녁 시간이나, 저녁에만 문을 여는 레스토랑 등 비어 있는 시간대에 공동 작업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합리적인 건축 재료 선택도 필요하다. AIA는 수명주기평가(LCA)를 고려하면 보다 효율적인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하나의 재료로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내충격이 삽입된 구조 전단벽을 활용하면 방음과 방화벽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마감재 사용을 줄인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동일한 질적 만족감을 구현할 수 있다.

건물 운영 시스템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운영 시스템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건물에 드는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건축의 경제성이란, 건축 선택 비용과 운영비용 모두를 최적화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AIA가 물, 에너지, 자원 등을 위한 설계 디자인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IA는 샌프란시스코 TRANSBAY에 있는 RCA(Rene



Cazenave Apartment)를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 사례로 꼽는다. RCA는 신체 장애가 있는 노숙자를 위한 공공 시설로, 샌프란시스코시가 거주민이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니 스튜디오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금융지구 남쪽에 위치한 RCA는 본래 고속도로 진출로가 있던 주차장 터였지만 2005년 Bay Bridge 도시 고속도로와 Transbay 터미널 신축,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탈바꿈했다.

재개발로 인해 지역 전체의 집값이 급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과 관련 예산의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RCA는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전체 비용을 줄였다. RCA를 설계한 LEDDY MAYTUM STACY 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전체 비용을 낮췄다.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고, 탄력적인 포스트텐서닝 전단벽 등 설계적 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

다. 또한 태양열 획득, 열 질량, 환기, 채광 등에 중점을 뒀다. 빗물을 저류 탱크에 보관하고 중수도 시설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법도 적용됐다. 건물 외관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는 만큼 RCA에는 사회적 교류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길을 건다 RCA 입구로 들어올 수 있다. 아파트와 이웃 사이의 일상적 전환이 거주자, 지원 직원, 관리인 사이에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건축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AIA가 제안하는 열 가지 프레임은 큰 틀에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을 아우르고 있다. 생태계를 위한 디자인을 다룬 만큼 다음 편에서는 '에너지를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조아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모 하우징업체 무보수 설계 광고 행위에 중지·시정 요청

건축사사무소 개설하지 않은 자가 법에 따른 건축사업무로 규정한 설계 수행은 '위법'

"업계 무자격자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할 것"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무자격자가 무보수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시

정·주의를 요청하는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협회는 모 하우징 업체가 설계수행 광고와 홍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우징 업체를 대상으로 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송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하우징업체의 무보수 설계 광고행위는 건축사법 위반행위로서

제재 대상이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자가 건축사업무로 규정한 설계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의하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

협회 담당자는 "해당 업체의 시정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져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와 더불어 무자격자의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홍보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정은주 건축사(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은주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건축사가 역량 발휘하는 토양 자리 잡을 듯”



정은주 건축사(시아 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저는 건축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첫 번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만든 도구요. 그 영향을 받아 인간의 삶이 달라졌고 유기체적으로 역인 질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공동체라는 범위로 확장되고 현재의 우리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 건축사라는 일에 자부심도 듭니다. 건축이 인간 문명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욕심과 고민도 들고요.”

정은주 건축사(시아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단단하게 쌓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은주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사무소 개소를 꿈꿨습니다. 건축사 자격 취득을 한 뒤 부산시에 사무소 업무 신고를 할 때의 기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사무소를 개소한 뒤로 달라진 게

있다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종류가 이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축사를 준비하는 수련 기간에는 분양용 주거 시설을 주요 업무로 맡았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교육 연구 시설 프로젝트 위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연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맡게 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사업가로, 건축 전문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가입이 올해를 기해 완성되는데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바랍니다.

“건축사의 임무는 외관을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건축사 핸드릭 페트루스 베르라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공간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입니다. 건축사로 경력을 쌓은 뒤에도 한 번씩 제가 생각하는 ‘공간 창조’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건축사의 공간 창조는 대지의 기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그 사회와 도시에 영향력을 가진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자 비전이라고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각종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의무가입을 완성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정은주 건축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혁신과 함께 공간 혁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완수한 만큼 건축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키기 위한 무거운 사명을 협회가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협회가 건축사의 목소리를 대변해 건축사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 자본과 건축주의 사업성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건축사가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건축 토양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업무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급 설계의 대가는 공사비 상승과 건축사 업무 대가 요율변경 등으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맞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반면 민간분야의 경우 상황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협회에서 민간 설계 대가기준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꼭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사는 설계에 있어 최고 자격인 만큼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 2회 실시되는 시험으로 약 1,000명 이상의 건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유 경쟁을 통한 건축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지만 건축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건축사 자격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건축 설계 시장은 세세할 정도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적산, 인테리어, 간판, 도시 공공 디자인 등 종류만 해도 다양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은 제각각이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세분화 되어 놓치고 있던 업무 범위도 건축사의 업무 영역으로 확대해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초급 : 70시간 - 특·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수상 그 후 ②

2022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북아현길과 경의선길 교차영역 세워진 세련된 공공건축물

이곳에서 학창 시절 보낸 윤승현 건축사 직접 설계

내·외부 경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모두에게 열린 모두의 공간

국내 건축 문화를 이끌 다채로운 건축물들을 선정했던 한국건축문화대상, 해마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 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무 번째 작품은 2022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작 '북아현문화체육센터'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전경(설계 윤승현·송민준 건축사)

사진 김재윤 사진작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설계 윤승현·송민준 건축사)

사진 김재윤 사진작가

사대문 바로 바깥 북아현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몸을 누인 밀집 거주지다. 그 시절엔 일단 먹고사는 게 중요했다. 주거 기능 이외 다른 편의시설은 들어 서기 쉽지 않았다. 사람이 늦게 모여 든 주위 신촌이나 서대문에는 근린·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을 균형 있게 건축할 여유가 있었지만, 북아현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장 빨리 모여든 만큼 역설적으로 세월의 변화에 빨리 뒤처져 재개발 예정지가 된 지 오래다. 백 년 전 시골벽적한 저층 주거지였던 곳은 근처 가재울이나 수색처럼 고층 아파트가 뻥뻥이 들어서고 있다.

◆ 건축사가 성장기 보낸 바로 그 동네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설계자 윤승현·송민준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는 이렇게 급속히 바뀌고 있는 북아현 지역에 들어선 종합 커뮤니티 시설이다.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 북아현길과 경의선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지역 주민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건축물이 생겼다.

공동설계자 중 한 명인 윤승현 건축사(現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는 바로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성장기 추억이 있는 동네, 윤 건축사는 설계공모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응모하기로 했다. 공모에 당선된 뒤 '우리 동네'에 들어설 공공 건축물을 설계하게 됐다. 그는 "자체로 기뻐했다고 윤 건축사는 말했다."

◆ '흐름을 잇는 건축물'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외형과 내부 공간 구성 모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 중점을 뒀다.

일단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막힌 느낌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북아현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이곳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선형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는 이미 공원이 완성됐고 앞

윤승현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와의 일문일답



윤승현 건축사

Q. 설계공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원래부터 공공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꾸준히 공모에 참여해 왔습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특별했던 건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에 세워지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동네가 어떤 시절을 겪어 지금에 이르렀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건축물을 보고 '흐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곳과 충정로를 잇는 선형공원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1층을 의도적으로 비웠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1층은 이 동네 누구나 잠시 무거운 일상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인 동시에 센터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역할도 합니다.

Q. 센터 내부 구성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흐름이라는 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주 가볍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넓게 퍼질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뚝 솟을 수밖에 없고, 체육 공간들은 맨 위에 있던 말이예요.

근데 그게 문턱 높은 체육 공간의 다른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영역으로 보기 위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1층에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면 위쪽으로 약간 공간을 열리게 해서 시야가 뚫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 충정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건축물은 이 중간, 1.653제곱미터 공간에 조성됐는데, 윤 건축사는 이 건축물로 공원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1층을 필로티 공간을 만들어 띄우기로 했다. 주어진 용적률과 건축주(서대문구청) 측에서 요구한 각종 시설에 필요한 공간 규모를 비교했을 때 거의 여유가 없음에도 말이다.

윤 건축사는 "건축물을 거기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 선형공원은 반 토막 나니, 뻥뻥하게 짓더라도 선형공원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니 (1층을) 띄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곳의 필로티 공간은 그래서 그냥 휴식을 위한 게 아니

내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소리도 들리고, 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고, 자연스럽게 채광된 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출입구부터 맨 위 다목적 체육관까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들은 이 계단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땅에서 시작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올라가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반대로 체육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빈틈, 살짝 틀어진 이 틈을 통해서 전체 공간들이 다 엮여져 보이는 그런 구상 속에서 설계했습니다.

Q.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 설계를 시작하실 때 바라보던 '건축'과 경험이 쌓인 뒤 지금 생각하는 '건축',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건축사 자격증을 딴 것이 1997년입니다.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이구요. 그 당시 계속 강조했던 건 "건축은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건축이라는 게 서비스업인 건 맞는데요.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사람들의 활동을 담은 그릇이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건축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건축물을 설계하느냐가 사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설이 이 도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들이 어떻게 더 확장돼 기회를 더 발산시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Q. 북아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공공건축물 설계에 관심이 많다고

라 두 지역을 잇는 통로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공간 구성에서도 '흐름'에 신경을 썼다. 이곳은 내부와 외부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 주위를 걷다가 우연한 만남처럼 "어 여기는 어떤 곳이지?"하며 들어왔다가 참마다 준비된 여러 시설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여러 자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윤 건축사는 "커뮤니티 공간이란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성격의 자원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하며, 예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장소가 됐는지 간에 환대 받을 권리와 환대할 책임이 있다.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거나 그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하고, 이 책임을 공간이 담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사회학자가 한 말인데요. 모든 건축물이 그렇지만 공공시설에는 특히 이 말이 더 절실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은 그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건축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가장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공공건축물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면, 이름은 각기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다양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공연장이 있고요. 문화강좌도 열립니다. 전시 공간도 있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계층 또는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점점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해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도시라는 게 화려하고 효율적이고 좋지만, 그럴수록 소외된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긴밀하게 화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도시에 사는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공공건축물의 역할이구요.

Q. 앞으로 계획은?

지금처럼 현업 건축사와 교수로서의 생활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아무래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할 것 같구요.

를 들어 문화시설의 경우 근처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와의 협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11월 개관해 1년 반 정도 운영 중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기대한 대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추계예술대학교 오케스트라가 '북아현 오후의 음악살롱'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연계 전시 '여행스케치'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다음은 공동설계자 윤승현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REPORT 건축공간연구원 _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옥 공공건축물 전국에 1,386동...전남에 가장 많고 경북·전북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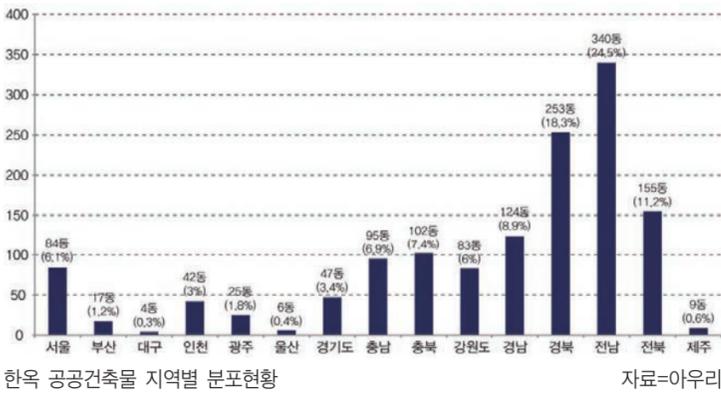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대부분 목구조

아우리 한옥 공공건축물 보고서, “중앙정부 차원의 한옥 지원제도 필요”



한옥 공공건축물인 김포시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전경(설계 : 김재현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소건축)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한옥 지원 정책으로 현재 건립된 한옥 공공건축물이 1,300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립된 한옥 공공건축물이 1,300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공간연구원(아우리)이 발간한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

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은 1,386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수인 340동(24.5%)이 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에 253동(18.3%), 전라북도에 155동(11.2%), 경상남도 124동(8.9%), 충청북도 102동(7.4%), 충청남도 95동(6.9%), 서울시 84동(6.1%), 강원도 83동(6%), 경기도 47동(3.4%), 인천시 42동(3%), 광주시 25동(1.8%), 부산시 17동(1.2%), 제주시 9동(0.6%), 울산시 6동(0.4%), 대구시 4동(0.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531동으로 가장 많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261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00동, 관광 휴게시설이 161동, 단독주택이 147동, 숙박시설이 100동, 교육연구시설이 26동, 수련시설이 26동, 업무시설이 5동, 그밖에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이 30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에 맞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유적지, 기념관, 박물관, 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수 분포현황에 대한 집계를 살

펴보면, 지상 1층이 1,284동(92.6%)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 2층으로 구성된 한옥 공공건축물은 35동(2.5%)이었으며, 지하1층·지상 1층은 34동(2.5%), 지하1층·지상 2층은 17동(1.2%)이었다.

그 밖에 기타 16동은 지상 3층 건축물이 3동, 지상 5층 건축물 1동, 지하 2층·지상 1층 건축물 1동, 지하 3층·지상 3층 건축물도 1동이 있었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총 1,260동 가운데 목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4동, 철근콘크리트·목구조 6동, 철골구조 3동, 조적조 3동, 기타구조 33동에 불과해, 목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면적 301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부터는 목구조 이외 구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연면적 1,201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13동 중 5동인 목구조 건축물보다 6동인 철근콘크리트·목구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한옥에 집중된 지원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당시 범정부 합동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이 마련됐다. 신한옥플랜에는 국가건축

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중심이 돼 문광부, 농림부, 외교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형태를 이뤘다. 한옥 보급 확산, 기술개발과 산업화, 한옥 보존·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등 4개 분야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 한옥의 적극적 활용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로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이 발표된 바 있다.

신한옥플랜 이전에는 2007년부터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한옥건축 활성화 정책·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한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는 상황이다.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던 2015년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건축활성화 지원주체에서 국가가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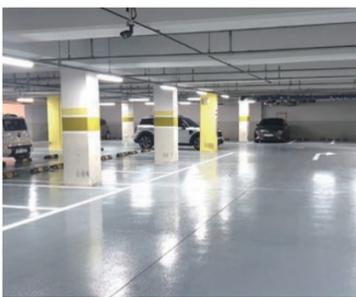
아우리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친환경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자재 & 테크 프리즘

(주)다이아몬드, 혁신적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시스템으로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

세라믹계 수용성 준불연 수지 사용한 ‘Dia QN-1000’ 시스템 선보여



(주)다이아몬드의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시스템

아파트와 대형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준불연 자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난연기준에서 이제는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 이상급 자재만 사용이 가능해지고, 성능 인증 시험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차장 바닥 마감 과정에서도 표면 조정재와 프라이머 등의 준불연성 확보와 이들을 활용한 토털 방재시스템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환경과 법령변화에 맞춰 기술과 제품을 발전시켜온 (주)다이아몬드가 신기술 특허제품과 다양한 공법으로 바닥 마감시스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다이아몬드는 최근 주차장 전체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주변부까지 적용 가능한 Dia QN-1000 시스템을 선보였다. 세라믹계 수용성 준불연 수지를 소재로 한 시스템은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는 혁신적인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시스템이다. 특히 화염전파 방지효과가 뛰어나고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희석제인 시너 미사용으로 환경 친화적인데다가 무취형으로 시공 중에 냄새가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주)다이아몬드 관계자는 “준불연 공법에 적용되는 프라이머 역시 무취이면서 습기에 강하고, 높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뛰어난 품질, 정밀한 시공으로 건축공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설계과정 제외 2개월이면 집 한 채 ‘뚝딱’ 모듈러 주택 시장 확대

2022년 기준 1,757억 원 시장 규모, 2년 만에 약 7배 확대
대기업들도 앞다퉈 시장 진입 본격화



자이가이스트가 충남 당진 공장부지 내에 설치한 목조모듈러주택 전경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국토교통부 기준)가 지난해 기준 1,75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268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약 2년 만에 6.5배 규모로 시장이 확대됐다. 시장의 성장은 고숙련 인력의 필요성이 낮아 인건비가 적게 들고, 주택의 질 또한 균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자 대기업들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미 삼성물산과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모듈러 주택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국내 단독주택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13일 GS건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조모듈러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누리집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B2C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목조모듈러 생산 공장 내에 주력 모델인 115제곱미터와 178제곱미터 2가지 타입의 샘플하우스를 마련해 예비 건축주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0% 출자해 설립한 자이가이스트는 프리패브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이다. 자이가이스트가 공급하는 모듈러주택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현장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 공정을 최소화해 빠르면 2개월

(설계 및 인허가 제외)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듈의 설계는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주)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 2년에 걸쳐 모듈러기술 연구와 평면 개발을 통해 약 50여 개의 모듈을 준비했다. 토지 형상과 내부 평면 구성에 따라 이 모듈들을 활용(조합)해 설계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자이가이스트는 30제곱미터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주택 ADU(Tiny House ADU)’도 함께 선보였다. ‘ADU’는 Attachable Dwelling Unit의 줄임말로 추가 모듈 결합을 통해 증축 가능한 소형주택 유닛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비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예비 건축주가 1차적으로 ADU를 설치해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활용해 보고, 향후에 추가 모듈을 결합해 증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이날 “프리패브 관련 새로운 공법과 기술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단독주택의 품질과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건축사공제조합 소식

건축사공제조합, 협회와의 상생 방안 협의체 구성해 '건축사대가지급 보장제' 등 제도개선 추진...수익률 5% 달성·조합원 편의 향상·연금제도 마련 등

조합, 신우식 이사장 취임 1년 핵심공약 실천현황 공개

▶ 법률, 노무 업무 지원 안내

구분	노무자문	법률자문
전문가	금원환 노무사(노무법인 누리컨설팅)	김덕희 변호사(법무법인 민)
연락처	010-4810-6518	02-6250-0103
자문시간	매주 수요일 (09:30~11:30 / 2시간)	매주 수요일(14:00~16:00 / 2시간)
자문범위	조합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이슈 등에 대한 법률·노무상담 및 자문	

▶ 건강진단 업무 제휴

구분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구로)
대상자	조합원, 조합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합원, 조합원의 임직원의 가족 (직계가족)
혜택	10% 할인 (단, 추가검사 제외)	- 40% 할인(단, 추가검사 제외) - 종합검진 후 외래진료 시 1개과 접수비 무료 지원
계약기간	23.03.01~24.02.28	23.03.01~23.12.31
예약방법	병원 콜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어플로 예약	

건축사공제조합이 취임 1년을 맞아 신우식 이사장의 핵심 공약 실천 현황을 공개했다. 핵심 공약인 수익률 5% 달성 등 공약 실천과 조합 발전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다.

조합은 수익률 5%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형건축사무소 영업과 이용 홍보를 위해 담당 위원을 지정·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 설계 감리비 지급 보증과 건설사업관리(CM) 공제증서 발급 확대 등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연대보증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약정제도를 도입해 조합원의 민원을 해소하고 보증 이용 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더불어 영업 외 수익 증대를 위해 자금관리규정을 개정해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수익 향상을 도모한다.

조합원을 위한 편의성도 향상하려 한다. 조합은 모바일 전산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조합원을 위한 변호사, 노무사와 1대1 우선 상담을 전면 시행해 업무 수행 중 겪는 법률, 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조합원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서비스, 소액보증서 및 손배 증권 무 심사 24시간 자동 발급, 마일리지제도, 건강검진 병원 MOU,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 및 운용으로 조합원 복지와 조합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운용 계획도 사업 TF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연금제도는 조합원이 출자 지분을 매각해 연금 식으로 인출하는 방식이며, 매년 20차 증자 운동으로 자본금 3천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합의 목표 수익률인 연 5% 달성을 가정할 경우, 30년 후 매년 200

만원 씩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협회와의 상생 방안을 위한 협의체는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협회와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세부 실천 내용 추진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건축사 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건축사법의 설계 감리 손해 배상공제 고시 제정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고시 개정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발급 확인서 발급 기관 지정 ▲건축사공제조합 의무가입 및 이용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건축사 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 추진 등을 검토한다.

조아라 기자

인터뷰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Archijoe)' 조원용 건축사

건축교육 시작한 이유?...“건축은 우리 사회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좋은 건축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14년간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축교육 몸소 실천

농부가 씨앗 뿌리듯이 눈앞 결과보다 미래 세대 위해 나서

건축이야말로 사회 공동체 이루는 바탕이자 역사·문화·경제·복지 등 아울러

어려서부터 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위한 ‘건축교육’ 있었으면

“놀이로서 건축 경험케 하는 일에 적극적 역할 할 것”

“건축이 모여 마을이 생기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어떠한 건축물이 서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주는지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소비하는 가장 비싼 소비재가 자기가 사는 집임에도,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에 대해 평생 배운 적이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간 초·중·고 및

전 국민 대상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온 조원용 건축사는 본지와 만나 “어릴 때부터 건축을 놀이로 경험하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면 꼭 건축사가 되지 않더라도 건축에 대해 건전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소양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아저씨’와 ‘Archijoe(아키조)’란 닉네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창의교육의 범주에서 건축을 가



조원용 건축사는 2010년부터 14년간 좋은 건축주를 만들기 위해 초·중·고·청소년 대상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Archijoe)’ 건축교육을 하고 있다.

르쳐오며, 방송과 온라인, 기업이나 관공서 등 ‘생활 속 건축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조원용 건축사는 좋은 건축문화의 시작은 건축사의 역량이 아니라 건축주의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건축사가 최선을 다해 멋진 건축물을 계획하더라도 이를 건축주가 높은 안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는 국가다”라며 “나라에 좋은 건축물이 많을수록 관광객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면은 물론 기타 부가적인 효과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담고자 함이다. 건축이야말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삶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14년간 외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축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온 결과, 2017년에는 국제건축사연맹(UIA) 한국지부인 FIKA(한국건축단체연합)로부터 어린이·청소년 건축교육 상인 ‘Golden Cubes Awards’ 한국 대표로 선정된 바 있다.

조 건축사는 특히 건축을 어려서

부터 놀이로서 즐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축을 학문이나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Archijoe)’과 같이 그는 놀이로서 건축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좀 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건축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바탕이면서, 공간과 형태, 역사, 문화, 복지, 주거, 경제 등 초·중·고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를 아우르는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도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이 명문화돼 있다.

그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 잠시 주춤했던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Archijoe)’을, 코로나가 잠잠해진 올해 더욱 활발히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건축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해 고민하며 그저 돈 많이 버는 ‘건물주’가 아닌 건축에 대한 소양이 높은 ‘좋은 건축주’가 되길 바란다”며 “14년째 묵묵히 외롭게 하고 있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초·중·고·청소년 건축교육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 다”고 덧붙였다.

장영호 기자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Archijoe)’

천안 역사 디자인 공개 전통 바탕으로 미래 연결하는 콘셉트

교통 요지·관문의 상징적 형태 디자인에 담아내
(주)혜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맡아



천안역사 외부 투시도

사진=천안시

천안시는 지난 4월 13일 천안 역사 증·개축 기타 설계 중간 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역사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천안 역사 디자인은 2019년 국가철도공단의 설계공모로 당선된 (주)혜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천안 역사 디자인 콘셉트의 기본 방향은 ‘모두에게 편안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민과 함께하는’이다. 여기에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이라는 콘셉트를 더했다. 또한 천안역이 서울

과 영남, 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상징적 형태를 도출해 디자인에 담았다. 아울러 천안역 광장을 복원함으로써 광장의 기능도 회복할 예정이다. 천안 원도심 활성화와 역사적 상징성 회복을 위해 고건축을 현대화한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고, 목재 마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 800억 원으로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조아라 기자

국립진주박물관 국제설계공모...설계비 30억 원, 7월 7일까지 공모

국가 사적 내 위치한 탓에 개선 어려워 이전 건립, 연면적 1만4,990제곱미터

국립진주박물관은 4월 10일부터 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해 설계자 선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84년 개관한 박물관은 국가 사적인 진주성 내에 위치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어렵고, 관람객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진주시 강남동의 (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지면적 2만 제곱미터, 연면적 1만 4,990제곱미터의 규모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4월 10일 공모공고를 시작한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7월 7일까지 제출된 공모안을 토대로 기술검토와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7월 19일에 최종적으로 당선작·설계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예정공사비는 506억 원, 추정 설계비는 30억 6,900원이다.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에 완공될 새로운 국립진주박물관은 문턱이 낮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	소속
권병용	NBBJ
김동진	홍익대학교
김정임	(주)서로아키텍처
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민아	건축사사무소 협동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이준석	명지대학교
김동규(예비)	경상국립대학교

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설계공모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jimuseum.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

총 6,193명 응시생 중 448명 합격
국토교통부(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kira.or.kr)는 4월 21일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6,193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3과목 합격자)는 448명, 합격률 7.2%를 기록했다.

과목별 합격자는 1교시 대지계획 372명, 2교시 건축설계1 873명, 3교시 건축설계2 721명이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243명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고, 40대가 145명(32.4%)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 여성 합격예정자는 35.3%로 전회(38.0%)보다 감소한 비율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6월 14일 발표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박관희 기자

책꽂이

원토픽 매거진 감(GARM) ‘조경’ 주제로 신간 발행



건축재료 원토픽 매거진 감(GARM)이 ‘조경’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매거진을 발행했다. 이번 호는 단일 재료가 아닌 조경 산업 전체를 다뤄, 조경이 사회 전반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조경을 주제로 한 만큼 매거진은 식물을 이용해 건물 주변을 꾸미는 작업으로 여겨 조경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조경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도시나 건물의 맥락을 살펴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지만, 재료와 결과물이 다른 영역이다. 자연에서 나고 자란 흙, 돌과 같은 식물을 주재료로 삼아 오브제가 아닌 바탕을 만들며 설계, 시공,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실외조경 편에서는 조경의 3대 요소인 식물, 포장재, 시설물 등을 살펴 보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공원의 종류와 일상에서 만나는 녹지의 조성 과정 등을 담았다. 실내조경 편에서는 식물이 실내로 들어온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실내 조경의 유형, 기능에 대한 분석과 눈여겨 볼만한 프로젝트와 스튜디오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담았다.

조아라 기자

농막 신고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증축전용...그 외 위법 사례 다수 발견

3년마다 존치신고 의무화에도 불법 증축 및 전용·농업 목적 외 타 용도 사용·위장 전입·존치기간 경과 등 불법 사항 적발
존치신고 시 현황사진 첨부 등 추가 방안 마련

농막(農幕)으로 신고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증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4월 18일 공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149개가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막은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물로,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감사로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 농업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위장 전입, 존치기간 경과 등 다수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불법 농막 증축이나 농지 전용 시 지정명령 등을 해야 한다. 본래 목적과 다른 농막 사용을 단속하고 농막이 필지 당 2개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 외에도 타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1,525개로 추정됐다. 1필지 2개 이상의 농막 축조신고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도 총주시를 비롯한 11곳이었다. 존치 기간 3년이 지난 채로 방치된 농막도 천안시를 비롯한 19개 지방자치단체 내 4,203개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3년이 경과했음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있게 된다. 농막에 위장전입을 방치한 사례도 영천시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내 520개나 됐다. 농막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직권조사를 미 실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실 거주를 하지 않은 520세대의 주민등록의 정정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률 위반여부를 확인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첨부 서류에 ‘현황 사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가 가설건축물 불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신고서 상에는 건축주, 연장 사유 등만 기재할 뿐 증축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황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 조아라 기자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집 만들기’ 체험 하세요

서울시, 4~11월 서울도시건축센터서 나의 집 만들기 체험 운영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키트활용 제작까지 100분간 진행(수강료 5,000원)된다. 수업은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의 ‘어린이 및 청소년 건축교육 지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주로

교육도구를 활용한 집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어린이편’ 운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센터 누리집(sca.seoul.go.kr) 또는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거나 서울도시건축센터(☎02-739-2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관희 기자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 적용처 주방/화장실/사위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이마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드립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제1회 고문회의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주요 업무 현황과 건축계 현안에 대해 원로 건축사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건축사회는 4월 7일 '2022년 제1회 고문회의'를 개최하고, 협회의 주요 안건 및 현안 문제에 대해 지문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건축행정 합동간담회 진행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지난 4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인천시 및 관내 10개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천건축행정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해 인천 서구청 감병석 구청장, 건축과 손병득 과장 등 관내 10개 기관의 건축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의 건축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에 13개의 안건을 선정하고 상호 협의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건축물 대장 정리 ▲공공 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범사업 ▲건축허가·신고시 도로 불인정(미지정) 전수조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추진 협조 ▲반 지하 주택 해소 대책 추진 협조 ▲2023 건축문화제 추진 협조 ▲녹색건축 인증 여부 확인 협조 ▲2023년

도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 ▲물류창고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 ▲가로구역 높이 지정시 전면도로 산정 기준 통일 ▲건축협정 제도의 이해를 위한 교육 필요성 ▲소규모 부설 주차장 연접 주차금지 등 관련 조례 개정 요청 ▲건축허가 시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제외 요청 등이다.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은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도 소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향후 회원들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건축 행정의 건실화가 필요한 만큼 관내 행정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동참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11일 울산시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발굴과 개선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 발대식에 발굴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울산시건축사회를 비롯 23개의 단체가 2024년 12월까지 활동하는 규제발굴단은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방위적인 발굴을 위해 올해 시행된 신규 사업이다. 김원호 울산시건축사회장은 "위촉된 규제발굴단은 각계각층 전문 단체로 구성돼 앞으로 울산의 숨은 규제를 잘 발굴해 낼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건축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축구동호회, 덕성초등학교에 후원금 전달

충청북도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청



주시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축구동호회는 4월 8일 이흥재 축구동호회장, 정운기 충청북도건축사회장,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덕성초등학교 축구부에 후원금 일백만 원을 전달하고,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이흥재 축구동호회장은 "덕성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거듭나길 바라며, 축구동호회에서는 앞으로도 축구부 꿈나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지역건축사회, 의무가입 이후 첫 지역건축사회 창립



지난 2월 7일 설립승인을 받은 여주지역건축사회가 4월 13일 선별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식 및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초대회장에는 지역건축사회 설립에 힘써온 최윤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플러스건축)가 취임했다. 최윤기 회장은 "창립을 위해 지원해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인천지역건축사회와 설립추진위원회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여주지역건축사회는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

를 밝혔다.

한편, 여주지역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136번째, 경기도건축사회 24번째 지역건축사회로 창립했으며, 건축

사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 이후 첫 지역건축사회 창립 사례이다.

편집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그린리모델링 수도권거점 플랫폼 구축사업 소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본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수도권 거점 플랫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수도권 거점 플랫폼 중앙대학교 센터
<http://greenremodeling-cau.csbr.re.kr/>

「그린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2023년 1차)」 교육생 선착순 모집중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공지사항 참조

그린리모델링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물 중 75%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 그린리모델링 수도권 거점 플랫폼 조직

그린리모델링 수도권 거점 플랫폼 (중앙대학교 센터)
Green Remodeling Platform (CAU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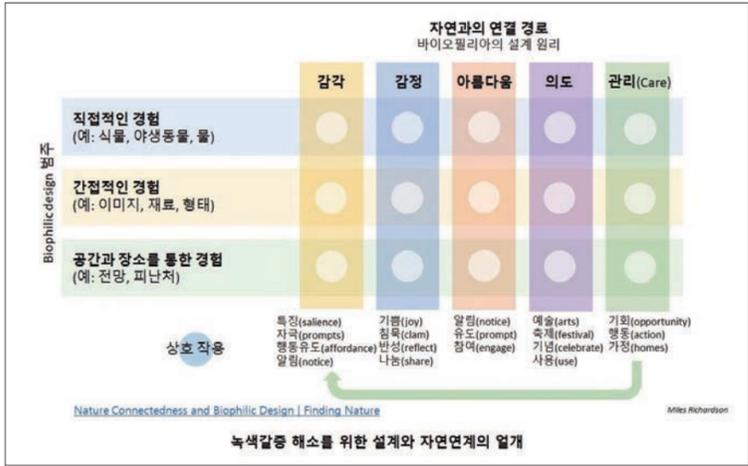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 ①

건축 환경에서 녹색갈증(biophilia) 설계의 필요성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을 설계한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사 쿠마켄코(隈研吾)는 20세기 건축을 콘크리트 상자에 사람을 채워 넣고 그 상자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는 시대로 표현했다.¹⁾ 슬럼화와 환경 파괴, 전염병, 범죄 등... 많은 사람을 제한된 도시 면적에 안전하게 수용하는데 급급했던 사회라 할 수 있다. 도시 유지를 위해 건물은 만들었다가 부수고 또 새로 만드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 build)가 필연적인 사회가 되었다. 건축물은 미리 부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집은 인간이 사는 대상이 라기보다는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문에 자연이나 그곳에 사는 생물, 사람과는 괴리감이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건축물은 자연과의 관계를 멀리 때어놓는 속물 근성의 사회 전유물이 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생명이나 생명 시스템에 대한 사랑을 biophilia(녹색갈증)²⁾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건강과 행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보고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바로 자연의 생리적, 심리적 이점을 실내 환경에 통합하는 바이오필릭 설계(biophilic design)³⁾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연결 설계에는 규범적인 목록이 없다. 목록은 이러한 요소들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연결된 시러 깊은 건축 환경에는 목재 이용이 수반되어야 함은 필연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생물 회귀본능의 심리를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접목하여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필릭 설계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 공동체에 대한 관계와 책임감을 목조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현재 목재

는 철이나 콘크리트의 전문성에 비하면 문턱이 너무 낮지만, 구조용직교집성판(CLT)이나 집성재 등을 이용한 고층 목조빌딩의 개발로 그 기술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건축계에서는 지역 사회와 의사 결정자들에게 녹색갈증과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졌으면 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창문으로 자연을 조망하는 것이 수술 후 입원 기간 단축⁴⁾, 재활 센터 환자의 이완 유도⁵⁾, 사무실 직원의 편안함 수준 향상⁶⁾과 같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내 식물의 존재는 또한 사무실 환경에서의 인지 기능 향상⁷⁾, 병원에서의 통증에 대한 내성 증가⁸⁾, 혈압과 심박수 감소⁹⁾와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호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과 연결되는 건축설계
목조건축이 요건 충족

1) https://event.rakuten.co.jp/area/japan/woodchange/columns/column_8
2) Fromm, E. The Heart of Man, (Harper & Row., 1964).
3) <https://findingnature.org.uk/2021/06/21/nature-connectedness-and-biophilic-design>
4) Ulrich, R. S.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 420-421 (1984).
5) Kjaersti Raanaas, R., Grindal Patil, G. & Hartig, T. Health benefits of a view of nature through the window: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patients in a residential rehabilitation centre. Clinical Rehabilitation 26, 21-32 (2011).
6) Aries, M. B. C., Veitch, J. A. & Newsham, G. R. Windows, view and office characteristics predi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comfor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533-541 (2010).
7) Kjaersti Raanaas, R., Evensen, K. H., Rich, D., Sjostrom, G. & Patil, G. Benefits of indoor plants on attention capacity in an office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99-105 (2011).
8) Park, S. H., Mattson, R. H. & Kim, E. Pain tolerance effects of ornamental plants in a simulated hospital patient room. Acta Horticulturae 639, 241-247 (2004).
9) Park, S. H. & Mattson, R. H. Effects of flowering and foliage plants in hospital rooms on patients recovering from abdominal surgery. HortTechnology 18, (2008).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송해공원 입구



옥연지 송해공원은 대구 달성군의 명예 군민인 송해 선생의 이름을 딴 공원이다. 옥연저수지 일원 4만7,300제곱미터에 걸쳐 조성이 되었으며, 공원과 함께 조성된 '옥연지 둘레길'은 옥연지 일대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이다. 2015년 조성이 시작되어 2017년에 완공이 되었다. 송해공원과 둘레길이 생기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옥연지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송해(宋海), 그의 생애

송해는 성악을 전공한 가수였지만,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코미디언 활동을 가수 활동보다 더 많이 했기에 사실상의 본업은 코미디언이며, 1988년 61세부터 사망 직전까지는 현역 최고령 MC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송해는 1927년 4월 27일,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은진송씨이다. 1949년 황해도 해주음악 전문학교에 만 22세 나이로 그의 끼를 눈여겨보며 예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아버지의 반대를 뚫고 입학해서 성악과에 들어가 성악을 공부하였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이듬해 14후퇴 당시 미군의 탈출선을 타고 월남했다. 부산에 도착한 송해는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하여 휴전 때까지 통신병으로 복무했으며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의 통신문을 모스 부호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복무할 당시 군대 선임의 소개에 의하여 부인 '석옥이' 여사를 처음 만났고, 이듬해 결혼하였다. 제대한 직후인 1955년 창공악단에서 가수로 정식 데뷔했으며, 1963년 영화 'YMS 504의 수병'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MC로 전환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얻었다.

백세정 전경



송해는 1988년부터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해왔다. 1988년부터 별세하기 22일전인 2022년 5월까지 총 34년을 진행하였으며, 1994년 봄 개편으로 잠시 진행을 중단한 6개월을 제외하면 연속 진행으로는 총 27년 동안 MC로 출연하였다. 202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타계하였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북 김천에서 화장되어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 있는 부인 석옥이 여사 곁에 안장되었다.

명소가 된 농업저수지

송해공원에는 둘레길, 데크로드, 출렁다리, 대형 물레방아, 백세교, 백세정,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원래 이곳은 옥포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다. 옥연지가 축조된 때는 1964년. 비슬산과 인근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기세곡천을 막아 조성된 인공 저수지다. 기세리에 있다고 해 기세못 또는 옥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옥연지는 옥포(玉浦)의 옥(玉)과 인근 유명 사찰인 용연사(龍淵寺)의 연(淵)을 따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지금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와 그 주변을 조성한 공원은 '달구벌 핫플'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 공원으로 수면 위 초대형 보름달의 형상을 한 등과 다양한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도심에서 30분 정도 차로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송해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웃는 표정의 송해 선생 캐릭터가 방문객을 반긴다. 옥연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백세교(橋)와 백세정(亭)은 송해공원 대표 볼거리이다. 공원 둘레길은 3.5km 한 바퀴를 걷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공원 주변에 카페 등도 생겨나면서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송해공원은 산림청이 숲길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국토 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공모'에서 전국의 22개 기관 89개소의 숲길 중에서 장려숲길로 선정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306
주차료 및 입장료 무료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신세계로의 첫걸음

건축과 삶

배미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강나루
(경상남도건축사회)



한때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나름 열리 어답터로 살았었다. 하지만 새로이 나오는 기술과 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따라가기도 힘들어지고, 익숙한 것이 편해서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며 지금의 나에 머물러 있었다.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역시 다르지 않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열심히 배웠지만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사라졌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핸드폰 하나만 들

고 나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해 손이 가벼운 세상에 늦게나마 합류하며 살고 있다. 식당에 가도 주문을 테이블오더로 하고 결제까지 하니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란 인사말 없이 조용히 문을 나서는 것도 익숙해지고 있다. 나의 생활도 변화되는 세상으로 인해 예전의 익숙함에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다.

최근 주위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하나의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검색을 하고, 그중 사실 아닌 것이나 과장을 걸러내어 객관적인 정보로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질문만 하면 몇 초 만에 정리해 준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작년부터 동료 건축사가 인공지능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저런 세상이

일상화되려면 살아생전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마스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나도 신세계를 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처음 앱에 접속했을 때 내가 로봇이 아닌 것을 확인하라는 문구부터가 당황스럽게 만든다. 제대로 접속한 것은 맞기는 한 건가?

첫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엉뚱해서 뭐가 문제인지 주변에 사용법을 물어가며 질문의 수준과 상위질문까지 계획을 세워본다. 쉬운 것부터 가자.

미래에 건축사는 없어지는 직업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 아니란다.

다음으로 미래 건축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물어본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에너지 효율적, 친환경적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유기적 공간 등등을 이야기한다.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미래 건축물의 재료에 관해 물어본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정성, 내구성 등이 고려된 재료지만 기본은 철과 콘크리트, 유리라고 답변한다.

뻔한 답일지도 모르겠다. 2021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니 최근의 내용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때로는 ‘카더라’ 수준도 되지 않는 답변을 할 때도 있다. 제대로 된 고급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의외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새로운 자료를 알려줘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제 밤 잠들기 전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활용’을 보면 구글링을 대신한 검색뿐 아니라 나의 업무와 생활 전반을 바꿔 줄 수 있는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점점 놓아버리고 있는 나에게 ‘너가 변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신세계로 조심스레 한 발짝 내디뎌본다.

시로 보는 세상

두 눈을 감박이는 기하학적 공간

- 박상순

심심한 앵무새와 흰 두 발 짐승이라고 쓰고
불명 또는 사랑이라고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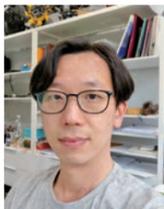
심심한 앵무새와 흰 두 발 짐승이라고 쓰고
불명 또는 햇빛 쏟아지는 거리라고 읽는다.
또는 너에게, 또는 나에게, 라고도 읽는다.

우아한 곡선, 밤새도록 내리는 비라고도 쓰고
심심한 앵무새 또는
휘저을 팔이 없는,
흰 두 발 짐승이라고 읽는다.

- 박상순 시집
‘마라나, 포르노 만화의 여주인공’ 중에서/
문학과지성사/ 2017년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는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구절을 적은(그린) 그림이 있다. A라고 쓰고 ‘A가 아니다’라고 읽는 시가 있다. 얼핏 마그리트의 그림과 그런 시는 유사해 보이지만, 어쩌면 시는 A라고 쓰고 어떤 방식이든 다르게 읽는 일반적인 속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과 ‘무엇’은 형용과 대상으로, 반드시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관계가 서로 상관없을 수도 있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 관계라면 문장과 문장요소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는 보여준다.
(함성호·시인)

| 발언대 |



이재현 건축사
모루 건축사사무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챗GPT - 건축 AI 가능성과 위험

2022년 말 챗GPT 발표 직후, IT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를 통해 초기부터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심심이’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싶을 정도의 성능을 가져 당황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챗GPT가 미국의 로스쿨 시험과 의사 시험을 합격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콜롬비아의 한 판사는 판결문 작성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되면서, 이게 내가 써본 그것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이는 언어 기반의 대화형 AI의 특성을 잘못 파악한 나의 잘못이 컸는데 이후 챗GPT 활용영상이나 응용법,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전문영역에서의 활용능력까지 이미 검증되었다고 여겨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어설픈 자동 설계프로그램이 아니라 조만간 진짜가 나타나 건축설계 판도가 뒤집어지며 건축사라는 직업 또한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상위권에는 항상 미술가, 음악가처럼 예술 분야의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석이나 계산, 그로인한 예측 능력은 AI가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창의성과 상상력, 감수성 등이 AI의 약점이라 생각하며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에게 가장 늦게까지 정복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 AI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믿기 힘든 결과를 낳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방하며 학습한 AI는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키워드 몇 개와 클릭 몇 번으로 생성해 내고 있으며, 원하는 화풍이나 작풍을 입력하기만 해도 원작자와 구분해 내지 못할 정도의 품질의 작품을 보여준다. 이 기술은 영상에도 적용되어 사람의 얼굴이나 대상을 바꿔주던 ‘deep fake’ 영상은 이제 장난수준이 되었고, 아예 새로운 영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음악 생성 AI로 작곡한 음원은 저작권에 대한 논란으로 입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도면분석이나 작성능력이 없는 챗GPT로는 건축업역에서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GPT-4가 이미지 해석 능력까지 갖췄게 되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극복했음이 확인됐다. 그 완벽한 자동설계 AI가 자본주의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아직’이라는 막연한 미래를 가리키던 말이 내 옆을 스쳐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건축 불경기를 걱정할게 아니라 AI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걸 좀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자면 나보다 설계를 더 잘하는 AI가 추가되는 것뿐이겠지만 그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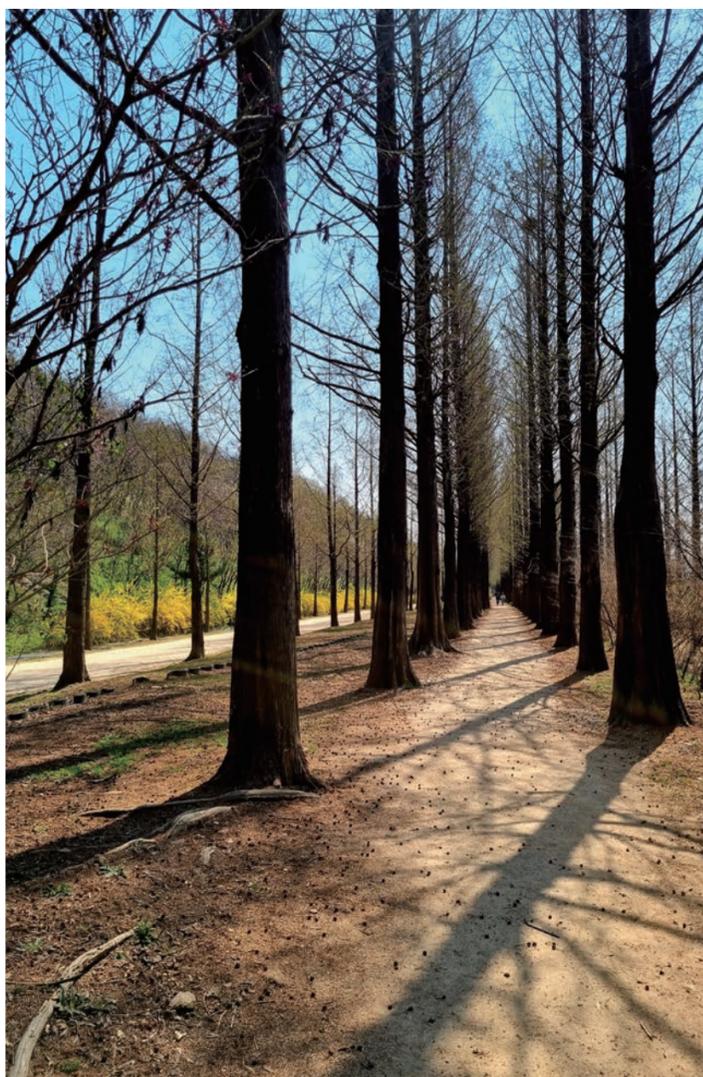
한 가지 다행이라면 건축법을 통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일들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자연이 주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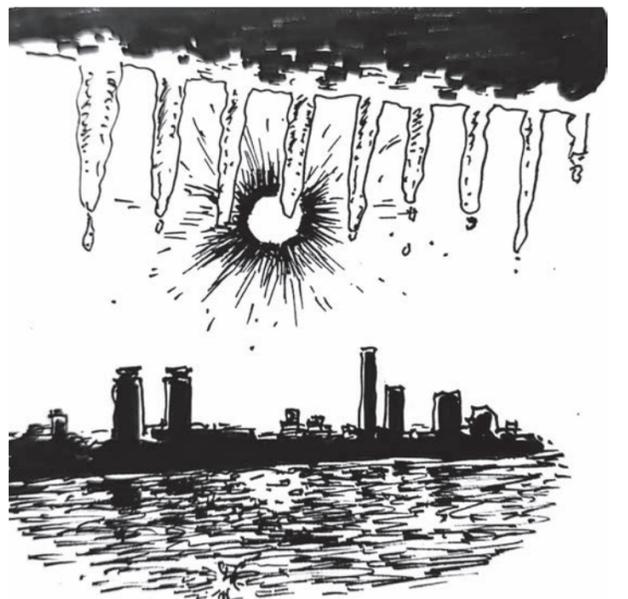
하늘 높이 수직으로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열을 지어 서 있습니다. 높게 솟구쳐 있는 메타세쿼이아 줄기의 수직적인 요소가 길게 이어져 있어 공간의 영역을 느끼게 해줍니다. 좌우로 이어진 메타세쿼이아의 공간의 넓이보다 길게 이어진 깊이로 인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진 방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대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의 요소로 건축을 또 배워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건축경기 확장화를 기대합니다..

14,2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6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04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Sinc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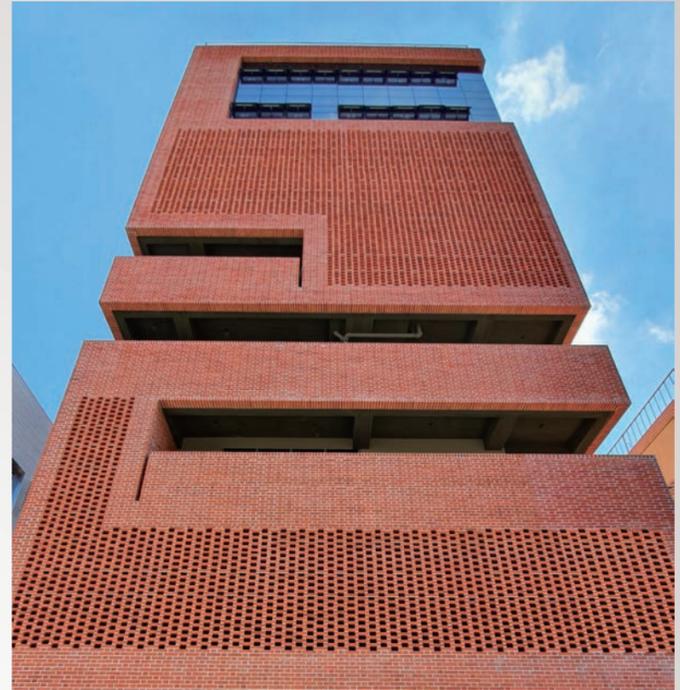
Bricko®
브릭코벽돌



2023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 자재
KIRA 2022.6 ~ 2025.5



The Beauty of Earth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브릭코벽돌 전자카탈로그]
브릭코벽돌의 전자카탈로그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브릭코벽돌
www.bricko.co.kr

서울사무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8 201호
청화요업(주) :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598
현대요업(주) :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530

BRICKO SHOWROOM 브릭코벽돌 쇼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49 에본빌딩 1층 (T.02-563-8933)